『겸허한 혁신과 책임 있는 연구』

지속가능한 제주 대전환의 실현

2025년 12월

Leading Innovations, Trusted Research: Toward Sustainable Jeju

하이난(하이커우) 출장 보고서

-제주연구원 및 CIRD 협력강화 MOU 체결-

2025. 12. 24

The Jeju Institute
제주연구원

2025년 12월 하이난(하이커우) 출장 보고서

제주연구원-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협력강화 MOU 체결

목 차

Ⅰ. 출장 개요

Ⅱ. 방문 지역 및 기관 주요 현황

Ⅲ. 회담 및 체결식 결과보고

Ⅳ. 기대 성과 및 후속 추진계획

첨부: 회의 및 MOU 체결식 사진

Ⅰ 출장 개요

1. 출장 추진 배경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의 대외개방 전략에서 전도(全岛) 단위 제도 실험의 핵심 무대로 기능 중인 지역임.

○ 통관·세제·투자·시장감독·데이터 규칙 등 경제제도의 핵심 변수에 대한 패키지형 혁신이 추진되는 중이며 관광·면세·국제소비·디지털무역·해양경제를 결합하는 성장모델이 강화되는 국면임.

○ 전도 봉관(封关运作) 개시 국면에서 통관·감독 체계가 전환 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이며 제도-현장 간 간극, 기업 비용구조 변화, 소비·관광 흐름 변화, 물류·통관 효율 변화에 대한 실증적 정보 축적 필요성 확대 국면임.

○ 제주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CIRD) 간 협력강화 MOU 체결은 전환기 현장정보 공유, 공동연구 추진, 정책대안 공동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미가 큰 상황임.

2. 출장 목적

○ 제주연구원-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CIRD) 간 협력강화 MOU 체결 및 2026-2028 단계별 협력 로드맵·추진체계 구체화 목적임.

○ 제주 국제자유도시(포괄적 권한이양)와 하이난 자유무역항(무관세·봉관) 공통 아젠다 비교·분석을 통한 면세, 정보산업, 해양경제, 관광,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정책대안 도출방안 논의 목적임.

○ 국제자유도시 및 자유무역항 관련 중점 연구분야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연차별 연구·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협력 내실화 목적임.

○ 공동 학술세미나 정례화 및 제주-하이난 포럼(순환 개최) 추진을 통한 실무협력 플랫폼 강화 목적임.

○ 연구인력 상호 파견, 공간·시설·재정지원 등 교류수단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 협력기반 강화 및 차기 협약 갱신 기반 마련 목적임.

3. 출장 개요

○ 여행목적: 제주연구원 및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협력 및 강화 MOU 체결 목적임.

○ 여행기간: (원장) 2025.12.18.-2025.12.21. 3박 4일 일정, (부원장 외 2명) 2025.12.16.-2025.12.21. 5박 6일 일정임.

○ 여행국: 중국(하이난성 하이커우시) 방문

○ 방문기관: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CIRD) 중심 방문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제도·산업 동향 관련 협의기관(하이나자유무역항연구원) 연계 방향임.

○ 핵심 일정: 2025.12.17.~18 TJI-CIRD 업무회담 진행 예정, 2025.12.19 업무회담 및 전략협력협약(MOU) 서명식 진행 예정

4. 방문단 구성원 및 일정

○ 유영봉 제주연구원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 정지형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 연구위원, 양자수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전략연구실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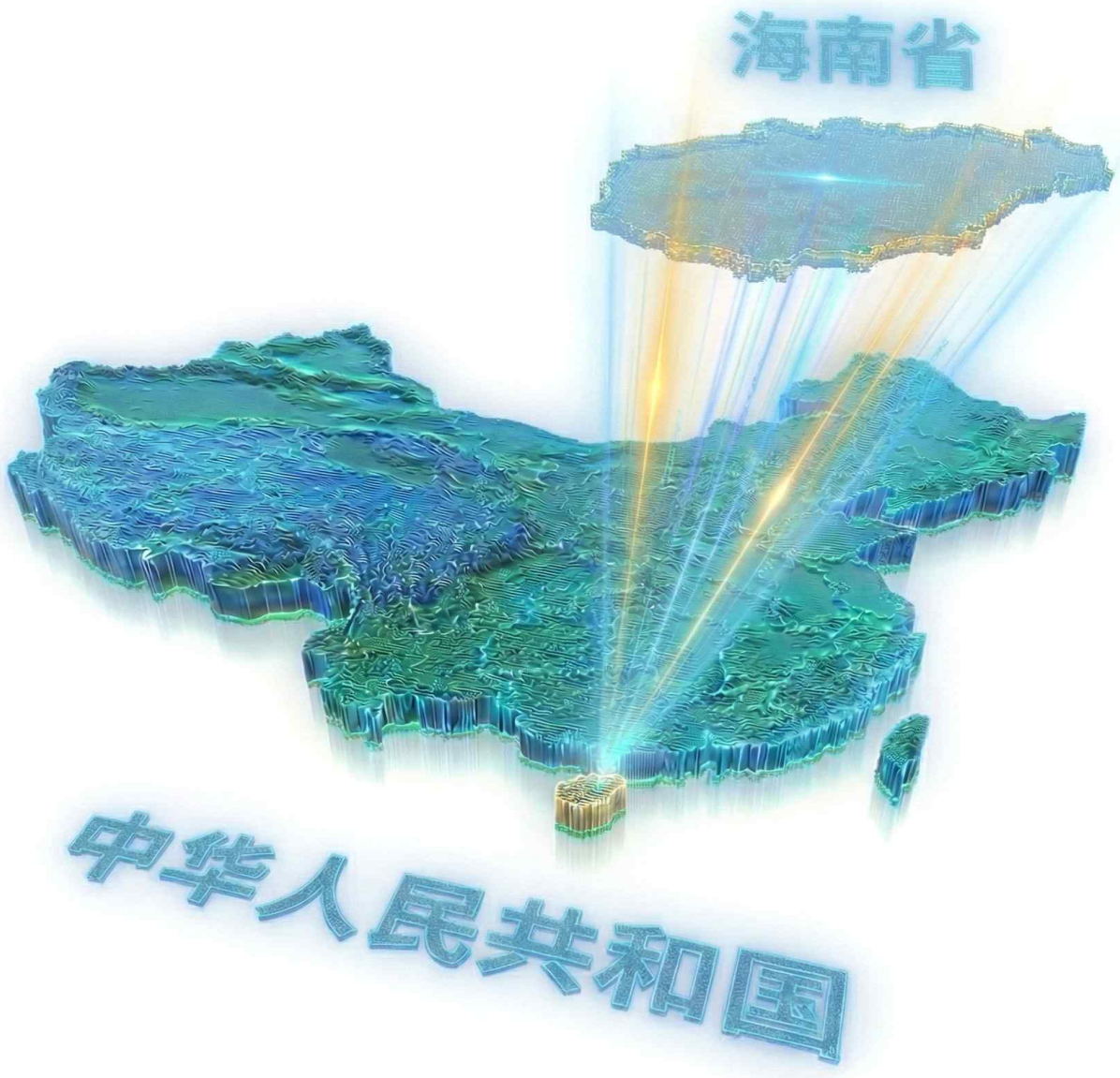
- 유영봉 원장 일정

<table>
<tr><th>월 일
(요일)</th><th>출발지</th><th>도착지</th><th>방문기관</th><th>업무수행내용</th></tr>
<tr><td>12.17(수)</td><td>제주 18:45</td><td>김포 20:00</td><td>이동</td><td>●인천공항 부근 1박</td></tr>
<tr><td rowspan="4">12.18(목)</td><td>인천 09:00</td><td>홍콩 12:00</td><td>(출국)</td><td>● 인천→ 홍콩→ 하이커우</td></tr>
<tr><td colspan="2"></td><td rowspan="3">중개원</td><td rowspan="3">●이 동</td></tr>
<tr><td>홍콩 13:30</td><td>하이커우 14:50</td></tr>
<tr><td colspan="2"></td></tr>
<tr><td rowspan="3">12. 19(금)</td><td colspan="2">10:00-12:00</td><td>현장</td><td>협력 관련 제주연구원 내부 업무회의</td></tr>
<tr><td colspan="2">12:00 - 13:30</td><td>오찬</td><td></td></tr>
<tr><td colspan="2">14:00-14:30
14:40-15:40</td><td>중개원</td><td>●중개원 역사관 참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양기관 교류 추진 사항 논의
- 교류강화 MOU 체결</td></tr>
<tr><td rowspan="3">12. 20(토)</td><td>하이커우 07:45</td><td>홍콩 09:10</td><td></td><td>● 하이커우→ 홍콩</td></tr>
<tr><td>홍콩 12:35</td><td>인천 17:05</td><td></td><td>● 인천도착</td></tr>
<tr><td>김포 20:30</td><td>제주 21:45</td><td></td><td>● 제주도착</td></tr>
</table>

- 강창민 부원장 외 2명 일정(사전 협의 및 MOU 체결 준비 등)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2.16(화)	제주 07:55	홍콩 10:25	(출국)	● 제주→ 하이커우 이동
	홍콩 18:35	하이커우 20:20	하이커우	● 하이커우 시내 숙박
12.17(수)	10:00 - 16:00		중개원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교류 활성화 및 추진방안 실무진 업무협의 MOU 내용 확정 : 롱샤오링 부원장 등
12.18(목)	10:00 - 16:00		중개원	● 하이난 자유무역항 연구소 - 공동연구 관련 세미나 - 무관세 정책 관련(하이난) - 국제자유도시, 및 제주 면제정책 관련(제주) - 공동연구 주제발굴 : 꿔다 연구소장 등
12.19(금)	10:00 - 12:00		현장	협력 관련 제주연구원 내부 업무회의
	12:00-13:40		중개원	오찬
	14:00-14:30 14:40-15:40		중개원	●중개원 역사관 참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양기관 교류 추진 사항 논의 - 교류강화 MOU 체결
12.20(토)	하이커우 12:05	상하이 14:45	(이동 및 환승)	● 하이커우→ 상하이
12.21(일)	상하이 10:10	제주 12:50	(입국)	● 상하이→ 제주

Ⅱ 방문 지역 및 기관 주요 현황



1. 하이난성 개황 및 대외개방 위상

○ 하이난성은 중국 최남단 도서형 성(省)으로 남중국해와 연계된 해상교통·항공교통의 결절점 기능을 보유한 전략지역임.

○ 단일 섬 권역 중심의 행정구조로 전 지역을 하나의 정책 실험공간으로 설계·적용하기 용이한 구조이며 제도개편의 적용범위와 파급효과를 비교적 명확히 관찰할 수 있는 장점 보유임.

○ 도서형 지리조건은 외부와의 경계 설정이 비교적 명료한 특성을 제공하며 통관선·감독선의 설정, 항만·공항 관문 기능의 일원화, 출입·물류 흐름의 가시화 등 정책집행의 공간적 단위 설정에 유리한 조건 제공임.

○ 하이난의 개방정책은 관세·통관 완화뿐 아니라 투자규제, 시장접근, 금융·자본, 데이터 이동, 인력 유입, 법치·분쟁해결 등 제도 전반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 성격 보유임.

○ 국제소비 중심지 지향에 따라 면세정책을 관광정책과 결합하고 전시(MICE)·문화콘텐츠·의료관광·스포츠 이벤트 등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는 수요정책 병행 흐름임.

○ 해양경제 측면에서는 항만권역의 보세·환적·가공 기능을 결합하여 무역과 제조·가공을 연동하는 가치사슬 유치를 지향하는 경향이며 섬 지역 물류비 구조를 제도혁신으로 보완하려는 정책논리 작동 중임.

○ 제주 관점에서는 권한이양형 국제자유도시 모델과 해관감독형 자유무역항 모델 간 작동원리 비교가 가능한 대표 사례로서 제도설계, 재정구조, 리스크 관리비용 배분구조, 성과평가 지표체계의 비교·분석 가치가 큰 지역임.

2. 하이커우시 도시 기능 및 정책·산업 기반

○ 하이커우시는 하이난성 성도(省都)로서 행정·정책조정·대외협력 기능이 집중된 핵심 거점이며 연구기관·공공기관·교육·의료 등 도시 서비스 기능의 중심지 역할 수행 중임.

○ 도시의 관문 기능은 항공·항만 물류와 직결되며 사람·물자·자본·정보 흐름이 통과하는 정책현장으로서 봉관 이후 제도 변화의 체감효과가 우선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공간임.

○ 하이커우는 도내 소비와 외래 소비를 동시에 흡수하는 구조이며 면세·관광 소비가 지역 상권·고용·물가에 미치는 파급이 커 수요정책과 도시관리정책의 결합 필요성이 높은 도시임.

○ 장둥신구(江东新区) 등 개발축을 활용한 고급 서비스업, 디지털·금융, 국제교류 기능 확장 시도가 관찰되며 공항·항만-도심-산업지구 연계의 공간정책 실험이 진행되는 흐름임.

○ 봉관 초기에는 통관절차의 변화가 물류기업·포워딩·유통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비용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도시 차원의 기업지원, 행정창구 통합, 전산 연계 수준이 경쟁력 변수로 작동 가능성 보유임.

○ 현장협의 시 하이커우의 기업지원체계, 투자유치 조직구조, 외자기업 애로처리 메커니즘, 봉관 관련 현장교육·가이드라인 제공 방식 확인 필요성 큰 상황임.

3. 지리·기후·인문 기반 및 구조적 리스크 요인

○ 하이난은 열대·아열대 기후권에 위치하여 연중 관광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태풍·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리스크가 상존하는 지역임.

○ 기후재난은 항공·해상 교통 차질, 관광수요 급감, 농업 생산 변동, 인프라 피해를 동시 유발 가능하며 재난대응·보험·재정지원·공급망 대체 체계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구조임.

○ 해양생태·연안환경·습지·산호 등 생태자원 보유는 지속가능관광과 생태보전 정책의 결합을 요구하며 개발 압력 증가 국면에서 환경영향평가, 해양오염 관리, 폐기물·하수 처리 역량이 핵심 정책변수로 작동 가능함.

○ 섬 지역 특유의 물류비·에너지 수급·식수·폐기물 처리 등 운영비용 구조가 상시 과제로 존재하며 개방 심화 국면에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서비스 부담 증가 가능성 상존함.

○ 리족(黎族) 등 소수민족 문화와 지역 전통이 공존하는 다문화 기반은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정체성 강화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 관광·개발 확대 과정에서 토지이용 변화, 지역사회 수용성, 주거비 상승, 일자리 질 격차 등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 상존하며 거버넌스·사회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국면임.

4. 경제·산업 구조 및 핵심 성장축

○ 하이난 경제는 관광 및 현대서비스업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첨단기술산업·해양경제·열대특색

고효율 농업을 결합하는 산업다각화 전략이 강화되는 흐름임.

○ 관광산업 고도화는 면세·국제소비·의료관광·웰니스·크루즈·MICE를 통합하는 체류형 소비모델 구축 지향이며 브랜드·콘텐츠·서비스 품질 관리체계의 고도화가 병행되는 국면임.

○ 면세정책은 국제브랜드 유치, 소비데이터 기반 마케팅, 공급망·물류 혁신, 소비자 보호·사후관리 등 제도적 장치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흐름임.

○ 디지털경제·데이터산업·스마트시티·바이오·헬스케어 등 전략 분야 육성이 추진되는 상황이며 규제특례, 시범사업, 투자유치가 패키지로 연계되는 구조임.

○ 해양경제 측면에서 항만물류, 해양서비스, 해양장비 등과 연계하여 항만권역의 보세·환적·가공 기능 결합을 통한 무역-가공-물류 가치사슬 유치가 강조되는 경향임.

○ 농업은 열대작물·과수·종자·스마트농업 등 특화 기반을 보유하며 가공·유통·브랜딩·수출의 산업화 방향이 강화되는 흐름임.

○ 산업공간 측면에서 양푸(洋浦) 항만권의 물류·가공·보세 기능, 보아오 러청(博鳌乐城) 의료관광 플랫폼, 야저우만(崖州湾) 혁신·과학기술 기능, 하이커우 장둥신구의 고급 서비스업 집적 등 기능분화형 클러스터 구축 흐름이 관찰되는 상황임.

5. 하이난 자유무역항 전도 봉관(封关运作) 추진의 의미

○ 전도 봉관은 전도(全岛)를 하나의 해관감독 단위로 전환하여 내륙과의 경계에서 통관·세제·감독 규칙을 재설계하는 제도적 변곡점임.

○ 핵심 프레임은 일선(一线) 개방·이선(二线) 관리·도내 자유(岛内自由) 체계 구축이며 대외 개방성과 내륙 유입 관리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설계구조임.

○ 봉관 추진은 관세정책 변화뿐 아니라 통관 프로세스, 기업 준수의무, 전산시스템 연계, 신용기반 분류감독, 사후관리 체계 등 운영체계 전반의 전환을 의미하는 상황임.

○ 봉관 초기에는 제도와 현장 운영 간 조정 필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컨설팅, 민원처리 메커니즘 작동 수준이 성패요인으로 작동 가능함.

5-1. 봉관 제도 설계(制度设计) 핵심

○ 봉관 제도 설계의 1차 목표는 자유로운 국제거래와 효율적 내륙관리의 동시 달성이라는 이중 목표 구조임.

○ 일선(국제)과 이선(내륙)이라는 경계선 설정은 공간적 단위의 명확화를 통해 감독비용을 낮추고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논리임.

○ 도내 자유(岛内自由)는 섬 내부에서의 물류·유통·가공 활동을 최대한 원활화하여 기업활동의 마찰비용을 낮추려는 정책지향임.

○ 세제 설계는 관세·증치세·소비세 등 조세 항목별로 우대 범위를 정의하고 사후관리 방식과 결합하여 '우대-준수-검증'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임.

○ 제로관세 적용은 대상 주체·품목·용도·유통범위와 연동되는 규칙 설계가 핵심이며 규칙의 명료성이 기업 예측가능성의 핵심 요소임.

○ 가공·제조 유인을 위한 규칙은 단순 유입형 무역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형 가치사슬의 정착을 지향하는 산업정책적 설계임.

○ 감독 설계는 '저간섭-고효율' 원칙을 표방하되 신용기반 분류감독과 데이터기반 리스크 관리로 감독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임.

○ 투자·시장접근 설계는 네거티브 리스트 기반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외자기업 애로처리·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신뢰성 제고를 포함하는 구조임.

○ 데이터 규칙 설계는 디지털무역 확대의 전제조건이며 개인정보·중요데이터 분류, 이전 절차, 책임소재, 표준계약 등의 제도요소 결합이 핵심임.

○ 제도 설계의 성과평가 구조는 물류비·통관시간·투자유입·고용·소비·환경부하 등 다차원 지표를 동시에 관리하는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임.

○ 제주 관점의 비교 포인트는 권한이양형 제도개혁과 해관감독형 제도개혁의 차이를 '집행 단위·감독 메커니즘·재정 구조'로 분해하여 비교하는 분석프레임 설정 필요함.

5-2. 봉관 운영 프로세스(运行流程) 핵심

○ 봉관 운영 프로세스의 핵심은 일선 단계의 신속 통관과 이선 단계의 정밀 관리의 결합이며 전산 연계 수준이 체감효과를 좌우하는 구조임.

○ 일선 단계에서의 사전신고·전자문서 기반 처리 확대는 통관의 예측가능성과 처리시간 단축을 지향하는 운영논리임.

○ 위험관리 기반 검사체계는 무차별 검사에서 신용·위험 기반 선택검사로 전환하여 기업 준수부담을 낮추는 방향임.

○ 보세창고·보세가공·환적 등 보세 기능의 활용은 도내 물류·가공의 유연성을 높이는 운영수단이며 재고·장부·추적 시스템의 정확성이 필수 요소임.

○ 이선 단계의 내륙 반입 프로세스는 신고·검사·세액 정산·사후감사 등 단계의 표준화가 중요하며 예외 처리 규칙의 명확화 필요성이 큰 구조임.

○ 가공증치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원재료 투입, 공정기록, 원가·부가가치 산정, 검증·감사 절차가 연동되는 운영체계 구축 필요함.

○ 원스톱 행정창구 및 기업지원센터는 통관·세무·시장감독·외환·물류 등 다기관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 전자통관·전자감독 시스템은 데이터의 정합성, 표준코드 체계, 기관 간 연계 API, 실시간 조회·추적 기능이 체감효과의 핵심 요소임.

○ 운영 안정화 초기에는 기업 대상 교육·매뉴얼 제공, 질의응답 채널, 시범운영 사례 공유가 준수비용을 낮추는 핵심 수단임.

○ 현장 확인 필요 항목으로 평균 처리시간, 검사 비율, 예외 발생 유형, 민원 처리시간, 시스템 장애 대응 프로토콜 등 운영지표의 확보 필요함.

○ 제주 측 실무 적용을 위해 봉관 프로세스를 ‘수입–보세–가공–도내 유통–이선 반입’ 흐름도로 재구성하고 단계별 비용·시간·서류 요구를 표준화할 필요함.

5-3. 봉관 리스크 관리(风险管理) 핵심

○ 봉관은 개방 확대와 통제 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로서 밀수·탈세·위장거래 등 전통적 리스크와 데이터·금융·평판 리스크가 동시 확대 가능한 국면임.

○ 무역 리스크로는 품목·원산지 위장, 과소신고, 허위 가공, 우대 남용 등이 존재하며 사후검증과 감사체계의 설계가 핵심 대응수단임.

○ 금융·자본 리스크로는 자금세탁, 불법 외환거래, 이상거래가 존재하며 금융기관·감독기관과의 정보연계 및 모니터링 체계가 중요함.

○ 데이터 리스크로는 개인정보·중요데이터 유출, 불법 이전, 사이버 공격이 존재하며 보안 인증, 표준계약,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관리체계 필요함.

○ 공급망 리스크로는 봉관 초기 제도 불확실성, 시스템 장애, 항만·공항 병목이 존재하며 비상대응·우회경로·완충재고 등의 운영전략 필요함.

○ 환경·사회 리스크로는 관광 과밀, 폐기물·하수 처리 부담, 연안오염, 주거비 상승, 지역 불평등 확대 등이 존재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관리수단이 필요함.

○ 재난·기후 리스크는 태풍·폭우로 인한 물류·관광의 급격한 충격 가능성 존재하며 인프라 회복탄력성, 재난보험, 재정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함.

○ 규제 리스크로는 중앙-지방 규칙 해석 차이, 부처 간 조정 지연, 집행의 불일치가 존재하며 표준지침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소통채널의 일원화가 중요함.

○ 평판 리스크로는 제도 남용 사례나 안전사고 발생 시 국제소비 중심지 이미지 훼손 가능성 존재하며 선제적 컴플라이언스와 투명한 정보공개 체계가 중요함.

○ 제주 측 연구과제로 리스크 유형별 발생 가능성-영향도 매트릭스 구성, 대응수단 비용·효과 평가, 리스크 조기경보 지표 설계의 공동연구 필요함.

5-4. 봉관 기업체감 영향(企业体感影响) 핵심

○ 기업체감 영향은 비용, 시간, 불확실성, 준수부담의 4요소로 요약 가능하며 업종·규모·공급망 위치에 따라 이질적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임.

○ 긍정적 체감으로는 일선 통관의 신속화, 물류 리드타임 단축, 보세기능 활용 확대, 국제소비 확대에 따른 판매기회 증가 가능성 존재함.

○ 부정적 체감으로는 초기 규칙 학습비용, 서류·전산 대응비용, 장부·추적 요구 강화, 사후검증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함.

○ 내륙 반입(이선) 단계의 절차가 기업에 체감되는 핵심 병목이 될 수 있으며 표준 프로세스의 명확성, 예외 처리의 예측가능성이 기업 만족도를 좌우함.

○ 가공증치 요건 등 조건부 우대는 제조·가공기업에는 기회이자 부담이며 공정기록·원가관리·감사 대응 역량이 경쟁력 요소로 작동 가능함.

○ 유통·소비재 기업은 면세·관광·MICE 결합을 통한 수요 확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나 수요 변동성과 재고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임.

○ 물류·포워딩 기업은 제도 변화의 수혜 가능성이 있으나 전산·통관 전문인력 확충,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가 필수 조건임.

○ 외자기업은 시장접근·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신뢰성, 영어 등 다언어 행정지원, 애로처리 속도가 투자환경 체감의 핵심 변수로 작동함.

○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전산 역량의 한계로 제도 적응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가능하며 교육·컨설팅·표준서식 제공 등 정책적 보완수단의 중요성이 큰 구조임.

○ 기업체감 조사 방법으로 설문(비용·시간·만족도), 심층인터뷰(애로·개선), 행정데이터(처리시간·검사비율) 결합의 혼합방법론 적용 필요함.

○ 제주 연계 관점에서 제주 기업의 하이난 진출 또는 하이난 연계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업종별 진입장벽·필요역량·지원정책’ 매핑 작업의 공동 추진 필요함.

6. 봉관 이후 핵심 정책패키지 구조 및 효과 메커니즘

○ 봉관 이후 정책패키지는 세제우대, 통관혁신, 감독정밀화, 투자환경 개선, 데이터 규칙 정비, 국제소비 촉진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형태임.

○ 제로관세(零关税) 적용 확대는 우대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 비용구조와 공급망 선택에 직접적 유인을 제공하는 장치이며 적용 대상주체·품목·유통범위와 사후관리 방식이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

○ 가공증치 요건 등 조건부 우대 규칙은 무역-가공-물류 결합형 가치사슬 유치를 지향하는 설계이며 제조·가공 유치정책과 통관정책의 결합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구조임.

○ 통관체계 혁신은 일선 항구의 방행 효율화와 이선 단계의 원스톱 통관 추진을 통해 시간·비용 절감 효과를 지향하며 전산 연계 수준과 표준화 수준이 체감효과를 좌우하는 구조임.

○ 감독체계는 저간섭·고효율 감독, 신용기반 분류감독, 디지털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로 구성되며 개방과 통제를 병행하는 방향임.

○ 투자환경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기반 예측가능성 제고, 외자기업 애로처리·분쟁해결 메커니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요소로 작동 가능함.

○ 디지털경제 측면에서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 개인정보·중요데이터 분류, 기업 준수부담 완화 지원수단이 디지털무역·서비스무역 확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함.

○ 국제소비·면세정책은 관광·MICE·문화콘텐츠·의료관광과 결합되어 체류형 소비 촉진을 지향하며 과밀·부작용 관리체계의 완성도가 정책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구조임.

○ 제주 연계 관점에서는 면세정책의 지속가능 구조, 디지털무역 규칙 설계, 항만·공항 관문경제 제도지원,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정책 결합 등에 대한 공동연구 가능성 보유임.

7.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CIRD) 기능 및 협력 가치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CIRD)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과 관련한 정책연구·제도설계·운영평가·국제협력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연구기관 성격임.

○ 봉관과 직결되는 통관체계, 세제우대, 기업환경, 감독모델, 국제규칙 정합성 등 고난도 정책의제를 구조적으로 연구·정리할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으로 평가 가능함.

○ 정부·연구·기업·국제기구를 연결하는 정책 네트워크 허브로서 현장 수요 반영, 정책 시범사업 설계, 성과 확산의 접점 역할 수행 가능성 보유임.

○ 제주연구원 관점에서의 협력 가치는 제도 비교연구의 공동 수행, 봉관 초기 운영정보의 공동 축적, 정책제안의 공동 발신, 실무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요약 가능함.

○ 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 책임자 지정, 연차별 과제·일정·산출물 명문화, 데이터 교류의 범위와 보안 원칙 합의의 선제적 설계 필요함.

8. 제주-하이난 비교분석 핵심 체크포인트(현장 협의·질의의 논리)

○ 봉관 초기 운영국면에서는 제도 설계와 현장 집행 간 간극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애로요인과 제도 보완 방향의 조기 파악이 정책평가의 출발점임.

○ 제로관세 적용의 대상주체·품목·유통범위와 사후관리 방식은 우대의 실효성과 리스크 비용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서 규정·가이드라인·사례집 확보 필요함.

○ 이선 통관 운영의 실제 절차, 신고·검사·방행의 소요시간, 전산연계 수준은 기업활동 체감효과와 직결되는 성과지표이며 표준 프로세스와 예외 처리규정 확인 필요함.

○ 가공증치 요건 산정 방식, 인정 절차, 적용 품목·기업요건은 제조·가공 유인효과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산정 예시, 인정기관, 사후검증 방식 확인 필요함.

○ 데이터 이동 규칙과 디지털무역 지원정책은 기업 준수부담과 성장기회 간 균형 설계가 핵심이며 데이터 분류 기준, 심사 절차, 지원수단 확인 필요함.

○ 국제소비·면세정책의 관광·MICE 연계 모델은 소비진작 효과뿐 아니라 과밀·부작용 관리체계 평가가 필요하며 수요관리, 소비자 보호, 사후관리 운영체계 확인 필요함.

○ 기후·재난·에너지 전환 정책은 섬 지역 회복탄력성 모델의 핵심 의제이며 재난대응 체계, 탄소중립 로드맵, 재생에너지 확대수단, 관광·환경 부담관리 수단의 비교 필요함.

Ⅲ 회담 및 체결식 결과보고

1. 12월 17일 업무 회의

- 시간 : 2025. 12. 17 10:00-11:50, 14:00~17:00
- 장소 : 중개원 도서관 회의실
- 언어 : 한국어 / 중국어 (순차통역)
- 주제: 제주연구원 및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협력강화 협정서 공동 검토

주 제	➢ 업무회의 - 제주연구원 및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협력 강화 협정서 내용 검토 및 수정 - 2026~2028년 양 기관 간의 협력 프로그램 및 추진 로드맵 논의
참 석 자	➢ 제주연구원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 Kang Chang-min, Vice President of Jeju Research Institute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Jung Ji-hyung, Research Committee Member of Jeju Research Institute 양자수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전략실 전문연구원 Yang Zishuai, Researcher of Research Planning & Strategy Division, Jeju Research Institute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궈다(郭达)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집행원장 Guo Da, Executive President of Hainan Institute for Free Trade Port Studies 왕홍선(王宏森)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비서장 Wang Hongsen, Secretary-Generalof Hainan Institute for Free Trade Port Studies 린펀(林芬) 국제협력센터 프로젝트 조리 Lin Fen, Project Assistant of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회의 내용

■ 17일 업무회의에서는 제주연구원-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간 강화 협력 MOU 이행을 위한 구체 실행방안과 예정된 하이난 자유무역항(무관세) 관련 세미나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첫째, 양 기관 공동연구 주제 및 추진 방식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제주연구원 측은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관세 정책을 공동연구 주제로 검토하되, 단순 제도 소개가 아니며, 법·제도적 체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과 의사결정 구조, 관련 법령의 체계화 과정, 그리고 이를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비교해 제주가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향을 제시함.

· 동시에 중국 측에서 "제주에 줄 시사점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이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상대가 원하는 주제(예: 제주 정책의 시사점)와의 상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안을 마련하기로 함.

· 또한, 공동연구 수행 시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이 직접 참여 여부, 혹은 하이난자유무역항 연구원(중개원의 출자한 단독 법인 연구원 성격)과 직접 협업 내용을 검토 필요. "컨택 라인 및 참여 형태(50:50 공동연구 vs 참여연구진 형태)"를 연구주제 선정 후 명확히 조율하기로 함.

- 둘째, 학술행사(세미나) 정례화 방안이 논의됨. 강화 협약 취지에 따라 2026년 이후 정기 학술행사를 추진하되, 주제는 무관세 정책 중심으로 검토하면서도 중국 측의 추가 희망 주제가 있을 경우 "상호 1개씩 주제 설정→발표·토론" 방식도 가능하다는 방향을 공유함.

· 운영 방식은 매년 정례화(예: 연 1회, 개최지 교차) 등으로 검토하되, 2026년 하이난 개최 시점은 10월 말 국제포럼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언급됨.

- 셋째, MOU 조항 중 하나인 연구정보 교류 체계 구축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고, 교류 범위를 "데이터"로만 한정하기보다 연구 결과물·출판물·연구보고서 교환까지 포함해 현실적 모델을 구성하는 방향이 제시됨.

· 제주 측은 필요 시 AI 데이터 센터 등을 통해 제주 자료 제공 가능성을 언급하되, 중국 측에서 어떤 부서가 담당해 상호 협력할지 등 담당 주체·교류 범위를 추후 교류 과정에서 논의함.

- 넷째, 제주-하이난 포럼 운영·개최 지원과 관련해, 포럼이 지자체·민간까지 포함하는 대외 행사 성격으로 확장될 경우 연구원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하이난성 등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조됨.

· 2019년 하이난 개최 사례에서 연구원 주도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 기관의 힘으로 추진한 것은

한계가 존재함. 향후에는 양 연구기관이 가교·지원(서포팅) 역할에 집중하는 운영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정리됨.

-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의 법인 형태 변화(주식회사 전환) 경위, 연구원 기능 범위 및 산하기관 구조,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제기됨.

· 또한 인력 파견은 별도 파견예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과제 기반 + 장기출장 형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상대 기관의 파견 의향 및 공간 제공 가능성 등도 질의해 보기로 함.

· 아울러 중국 측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주연구원은 동일 기능을 갖추기 어렵지만 “상대 프로그램 참여” 형태라면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정리됨.

2. 12월 18일 업무 회의

- 시간 : 2025. 12.18 10:00-11:50, 14:00~17:00

- 장소 : 중개원 도서관 회의실

- 언어 : 한국어 / 중국어 (순차통역)

- 주제: 제주특별자치도 총괄적 관한이양 및 하이난자유무역항 봉관 정책의 공동세미나

주 제	➢ 공동세미나 - 제주특별자치도 총괄적 관한이양 및 하이난자유무역항 봉관 정책 추진 세미나 - 양 기관 협력 연구 등 논의
참 석 자	➢ 제주연구원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 Kang Chang-min, Vice President of Jeju Research Institute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Jung Ji-hyung, Research Committee Member of Jeju Research Institute 양자수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전략실 전문연구원 Yang Zishuai, Researcher of Research Planning & Strategy Division, Jeju Research Institute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궈다(郭达)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집행원장 Guo Da, Executive President of Hainan Institute for Free Trade Port Studies 궈윈친(郭文芹)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부원장

	Guo Wenqin, Vice President of Hainan Institute for Free Trade Port Stitutes 왕홍선(王宏森)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비서장 Wang Hongsen, Secretary-Generalof Hainan Institute for Free Trade Port Studies 린펀(林芬) 국제협력센터 프로젝트 조리 Lin Fen, Project Assistant of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회의 내용

■ 2025년 12월 18일, 제주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하이난 현지 중개원 도서관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총괄적 권한이양 및 하이난자유무역항 봉관 정책'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양측 연구진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지역의 핵심 생존 전략인 면세 정책, 봉관 운영, 그리고 서비스 시장 개방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 산업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 정책 공유가 이루어짐.

■ 하이난자유무역항의 2025년 봉관 운영 및 서비스 시장의 과감한 개방

- 중국 측 발표를 맡은 궈다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집행원장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봉관(封關) 운영'이 단순한 관세 장벽의 변화를 넘어선 거대한 제도적 전환임을 강조함.

- 하이난은 기존의 복잡한 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통일 네거티브 리스트' 체제로 전격 전환하며, 무관세 적용 품목을 전체의 74%까지 확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항을 구축할 계획임. 특히 하이난 측은 이번 회담에서 제주의 교육 및 의료 분야 선도 사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를 진행함.

- 하이난은 현재 해외 우수 대학의 독자적인 설립을 허용하고 국제 의료 관광 선행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글로벌 서비스 허브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주의 영어교육도시 운영 성과와 의료 특례 적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및 규제 혁신 경험을 핵심적인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힘.

■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이양 고도화와 면세·교육·의료 산업의 전략적 육성

- 제주 측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되어 온 중앙정부 권한이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며, 특히 재정적 자립을 뒷받침할 '면세특례 확대 방안'을 상세히 발표함.

- 제주연구원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면세 대상을 도내 생산 물품까지 대폭 확대하고, 하이난의 성공 사례인 도외 관광객 대상 면세 제도(Offshore Duty-Free)를 적극

도입하여 구매 한도 및 횟수 제한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 아울러 제주 측은 하이난이 큰 관심을 보인 교육과 의료 산업에 대해서도 제주의 강점을 피력함.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동북아 교육 허브 구축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확보한 특별법상 특례 권한들이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였으며, 향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하이난 측과 활발한 의견을 교환함.

■ 교육·의료·면세 분야의 제도적 혁신과 갈등 관리에 관한 집중 토론

-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하이난 연구진은 제주의 국제학교 유치 과정에서의 인센티브 구조와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짐. 양측은 단순한 물적 교류를 넘어 교육, 의료와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야말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 완전히 투합함.

- 특히 하이난 측은 제주의 교육·의료 특례 모델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지향하는 '보더 비하인드(Behind-the-Border)'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방의 설계에 있어 매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높이 평가함.

■ 결론 및 향후 아시아 개방 거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양 기관은 제주와 하이난이 각각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개방 실험장으로서 유사한 정책적 도전 과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양측은 이번 회담의 핵심 논의 주제였던 교육, 의료, 면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하이난의 봉관 운영과 제주의 권한이양 고도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로 함.

- 이는 아시아 경제권 내에서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 지역의 정책적 강점을 결합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혁신을 이끌어내기로 하며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3. 12월 19일 양기관 원장 회담 및 협력강화 MIOU 체결

- 시간 : 2025. 12. 19 10:00~11:50, 14:40-15:40

- 장소 : 중개원 도서관 회의실

- 언어 : 중국어 / 한국어 (순차통역)

- 주제: 제주연구원 및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강화 협력 협정서 체결식

주 제	➢ 오전 업무회의 - 제주연구원 업무회의 - 기관협력 및 협력방안 논의 ➢ 오후 양 기관 회담 및 MOU 체결식 - 츠푸린 원장 환영사 - 유영봉 원장 인사말 - 양 기관 주요 참석자 소개 및 회담 ➢ 전략협력협정 체결식
	➢ 선물교환 (츠푸린원장、유영봉원장), 기념촬영
참 석 자	➢ 제주연구원 - 유영봉(刘永凤) 제주연구원장 -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 - 정지형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양자수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전략실 전문연구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츠푸린(迟福林)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장,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장 - 먀오수빈(苗树彬)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집행원장 - 궈다(郭 达) 하이난자유무역항연구원 집행원장 - 룽샤오링(龙晓玲)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부원장, 판공실주임 - 가오리쥔(高丽君)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 조리 - 량회(梁晖) 하이난중개국호 자유무역항법률연구센터 비서장 - 진소화(陈所华)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출판정보센터 주임 - 린펀(林芬)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국제협력센터 프로젝트 조리

○ 회의 내용

■ 2025년 12월 19일, 제주연구원 유영봉 원장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이하 중개원) 츠푸린 원장은 하이난 현지에서 공식 원장 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3년간의 성과 지향형 로드맵을 담은 '협력 강화 양해각서(2026~2028)'를 체결함.

- 이번 협약은 2016년부터 이어져 온 양 기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당면한 핵심 의제에 대해 공동연구, 인적 교류, 학술행사, 정보공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됨. 양측은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교류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농업 분야 협력 제의: 하이난 커피 산업의 미래와 연구 필요성 강조 특히 이번 회담에서 유영봉 제주연구원 원장은 제주의 선진 농업 기술과 하이난의 아열대 자원을 결합한 농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공식 제의함.

- 유 원장은 하이난성이 보유한 커피 농업 및 가공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난성 차원의 집중적인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는 하이난의 풍부한 원두 생산 능력과 제주의 고부가가치 가공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하여 양 지역의 농업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중개원 측 역시 하이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제언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공감을 표함.

■ 서비스 시장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공유 전날인 18일 진행된 세미나에서 하이난 측은 제주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 사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함.

- 하이난은 2025년 전면적인 봉관 운영을 앞두고 해외 우수 대학 독립 설립과 국제 의료 관광 선행구역 운영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제주의 영어교육도시 성과와 의료 특례 적용 경험을 핵심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음을 밝힘.

- 이에 대해 제주 측은 권한이양을 통한 면세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하이난의 도외 관광객 면세 제도를 참고한 구매 한도 상향 및 품목 확대 등 제주형 면세 모델의 고도화 방향을 공유함.

■ 5대 협력 의제와 '제주-하이난 포럼' 정례화 양 기관은 면세쇼핑, 헬스케어·의료미용, 해양경제, 녹색에너지, 인프라 상호연결을 5대 공동 관심 의제로 설정함.

- 또한 이번에 제안된 농업 및 커피 산업 협력 또한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임. 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에는 하이난에서 '하이난-제주 포럼'을, 2027년에는 제주에서

‘제주-하이난 포럼’을 순차적으로 공동 개최하기로 함.

- 이 포럼은 학술교류를 넘어 정부와 기업, 상공회의소 등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육성될 계획임.

■ 향후 추진 체계 및 실행력 제고 방안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은 주요 책임자가 참여하는 ‘협력지도팀’을 구성하고 연간 최소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함.

- 제주연구원 측에서는 정지형 연구위원과 양자수 전문연구원 등을 실무 담당자로 지정하여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함.

- 또한, 공동연구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와 비공개 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함.

■ 종합 결론 및 전망: 유영봉 원장은 이번 협약과 농업 분야 협력 제안이 제주와 하이난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개방형 경제 및 산업 전환 의제에서 양국 싱크탱크 간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특히 커피 산업을 비롯한 농업 분야의 연구 협력은 양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이번에 구축된 성과 지향형 협력 체계는 아시아 지역의 개방형 경제 모델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됨

Ⅳ 기대 성과 및 후속 추진계획

1. 기대 성과

○ 협력강화 MOU 체결을 통한 2026-2028 단계별 협력 로드맵 및 추진체계 구체화

○ 제주-하이난 공통 아젠다 비교·분석 기반의 정책대안 도출

○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연차별 연구·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협력 내실화

○ 공동 학술세미나 정례화 및 제주-하이난 포럼 추진을 통한 실무협력 플랫폼 강화

○ 연구인력 상호 파견 등 교류수단 다변화를 통한 지속가능 협력기반 강화 및 차기 협약 갱신 기반 마련

○ 봉관 초기 운영정보의 확보를 통한 제주 정책설계의 실증 근거 축적 성과

2. 2026-2028 협력 로드맵(안)

○ 2026년: 제도 비교 공동연구 착수 및 데이터·자료 교류 체계 구축, 봉관 초기 운영평가 공동 브리핑 추진, 공동 아젠다 연구설계 확정 방향임.

○ 2027년: 공동 학술세미나 정례화, 제주-하이난 포럼 개최(제주 개최 원칙) 추진, 연차 성과보고서 발간 및 정책확산 추진 방향임.

○ 2028년: 3개년 협력성과 종합평가 및 차기 협약 갱신 논의, 공동연구 성과집 발간 및 후속 과제 발굴 방향임.

3. 후속 추진계획

○ 협약 체결 즉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 리스트 작성 및 담당자 지정 필요함.

○ 2026년 공동연구 주제 2-3개 우선 선정 및 연구설계(방법론·데이터·일정) 확정 필요함.

○ 봉관 초기 운영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 브리핑 채널 구축 필요함.

○ 공동세미나 정례화 및 포럼 개최지·시기·참여자 범위 원칙 합의 필요함.

○ 공동보고서(한·중 병기) 발간 및 대외 확산전략 수립 필요함.

○ 연구인력 교류 범위(단기 파견·공동조사·연수)와 지원방식(공간·시설·비용) 협의 필요함.

4. 리스크 및 대응

○ 봉관 초기 운영 불확실성에 따른 정보 변동 가능성 상존, 다중 출처 확인 및 문서화 원칙 적용 필요함.

○ 행사·의전 일정 변동 가능성 상존, 시간표 버퍼 확보 및 대체 시나리오 준비 필요함.

○ 통역·자료 미비 리스크 상존, 사전 질의서 공유 및 자료 요청 목록 사전 송부 필요함.

○ 대외 홍보 문구·표현 민감성 상존, 공식 표현·사진 공개 범위 사전 합의 필요함.

첨부 회의 및 MOU 체결식 사진

CIRD
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

제주연구원
中国海南改革发展研究院－济州研究院
제주연구원-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工作会谈及签约仪式
업무회담 및 강화 MOU 체결식
2025年12月19日
December 19, 2025

제주연구원